



전주매일



2018년 8월 28일 화요일 (음 7월 18일) 제2118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063)288-9700

시민행복 '국제안전도시 전주' 선포

시, 도내 최초 공인... 시민 삶 위해 손상예방·안전증진 사업 지속 수행 약속

전주시가 시민들이 행복하고 안전한 국제안전도시로 만들어갈 것을 선포했다. (관련기사 4면)

시는 27일 덕진예술회관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박병술 시의회 의장, 데일런스 국제안전도시공인센터 의장, 조준필 국제안전도시지원센터장, 배정 이 국제안전도시 심사평가 전문위원, 유관기관 및 단체 주요인사와 시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제안전도시 공인 선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김승수 시장은 전주시민의 안전한 삶을 위해 손상예방 및 안전증진 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시와 시의회, ISCCC, 시민이 함께 협력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또, ISCCC로부터 국제안전도시 공인패와 휘장을 전달 받았다.

시는 이번 선포식을 통해 전주가 시민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각자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인프라가 잘 갖춰진 문화관광도시 도약을 위한 도시경쟁력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

이와 관련, 국제안전도시 공인은 김승수 전주시장의 민선6기 공약사업으로, 시는 이를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안전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안전도시 조례 제정 △7개 분과위원회

구성·운영 △분야별 사업 프로그램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의 준비를 해 왔다. 그 결과, ISCCC는 사전 예비 실사와 현지 실사를 거쳐 지난 5월 8일 공인을 확정했다.

현지 실사를 위해 전주를 찾은 데일런스의장과 심사단은 "전주시의 국제안전도시 사업이 공인기준에 모두 적합하고 지역사회 구성원의 거버넌스 구축과 참여도가 매우 우수하다"고 호평했다.

김 시장은 이에 대해 "국제안전도시 공인은 '시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전주'를 목표로 지난 4년간 시청과 유관기관, 민간단체, 시민이 모두 함께 노력한 결과물로 전주가 완벽하게 안전

하다는 의미보다는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들을 차단하고 예방하는데 시민 모두가 능동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출발의 의미가 더 크다"며 "향후 국제안전도시 공인도시답게 시민들과 함께 모두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아이들은 물론, 장애인, 여성, 어르신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세계적인 도시로 만드는 데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제안전도시공인센터(ISCCC)가 공인하는 국제안전도시는 '모든 종류의 사고, 폭력, 자살, 재해 등 위해 요인으로부터 신체적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지속적으로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노력하는 도시'를 의미한다. /송효철 기자

작년 생산가능인구 첫 감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국내 3619만6000명으로

전년대비 11만6000명 ↓

지난해 한국의 생산가능인구가 처음으로 감소하고 고령인구 비중은 14%선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예견됐던 '인구절벽' 현상이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2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인구주택총조사 전수집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15~64세 내국인은 3619만6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0.3%(11만6000명) 감소했다.

15~64세 인구는 생산가능인구로 경제활동을 펴기에 적당한 나이대의 인구집단을 뜻한다.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면 그 사회의 생산 동력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우리사회의 생산가능인구는 지난해 처음으로 감소했다. 지난 2016년 12월과 지난해 1월 사이 정점을 찍은 뒤 감소세로 돌아섰다는 것이 통계청의 설명이다.

정부 예측치보다 줄어든 속도는 더욱 빨랐다. 통계청이 지난 2016년 12월 내놓은 '장래인구추계(2015~2065년)'에서는 생산가능인구가 2016년 3762만7000명에서 이듬해 3762만명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실제 감소폭은 훨씬 더 컸다.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든 대신 고령인구는 늘었다.

지난해 65세 이상 인구는 711만 5000명으로 5.0%(34만명) 증가했다.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13.6%에서 지난해 14.2%로 늘었다.

노인인구 비중이 14%를 돌파,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유엔(UN)은 노인인구 비중이 7~14%면 고령화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정의하고 있다.

문제는 전세계적으로도 비교 대상을 찾기 힘든 정도의 빠른 속도다.

한국은 지난 2000년 고령인구 비중이 7.0%를 기록하며 고령화사회에 진입했는데 불과 17년 만에 다음 단계로 뛰어올랐다. 일본의 경우 24년(1970년~1994년)이 걸린 점을 감안하면 우리사회의 고령화는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될 전망이다.

시도별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전남이 22%로 가장 높았다. 경북과 전북이 각각 19.0%, 강원은 18.0%에 달했다. 서울의 고령인구는 13.7%였고 세종은 9.3%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지난해 0~14세 유소년 인구는 663만2000명으로 1년 전보다 2.0%(13만 7000명) 감소했다. /뉴시스



물바다가 된 전주천 27일 전주지역에 비가 쏟아져 내리는 가운데 전주시 백제교 일대의 전주천이 강한 물살로 인해 넘실대고 있다.

전북에 연이어 내린 큰비... 도, 피해 대응 총력

송하진 도지사 "인명 피해 우려지역·재해취약지역 특별 관리 대비 철저해야"

강수량은 진안이 269.0mm로 도내 최고... 남원·완주 등 3개 시군에 호우 피해

전북도는 지난 24일 제19호 태풍 '솔릭'이 전북도를 통과한 이후 연이어 호우특보가 26일부터 발표됨에 따라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재대본)가 동하고 집중호우 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송하진 지사는 27일 오전 9시 30분 간부회의시 실·국장들에게 "태풍으로 지반이 약해져 있는 가운데 내린 비로 많은 호우 피해가 우려된다"며, "인명 피해 우려지역과 산사태 등 재해취약지역을 특별히 관리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긴급 지시

했다.

또한, "시·군 및 유관기관과의 협조 체계를 확고히 구축하고, 생활과 연계된 주택 피해 등을 최소화 하여 도민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활동 및 대비에 만전을 기하라"고 주문했다.

이번 비는 지난 26일~27일 오전 9시 기준 진안이 최고 269.0mm 내렸고, 장수 267.0mm, 남원 194.6mm, 무주 190.5mm 등 도내 평균 163.8mm의 강수량을 기록했다.

현재까지 호우 피해는 3개 시군에 9건으로 집계되었다. 주요 피해 내용은

로는 남원에 있는 주택 2동이 일부 침수되어 배수를 완료한 상태이고, 완주군 동상면 등의 국지도 55호 토석유출 등의 6건 도로 피해에 대해서는 잔재물 등을 제거 조치를 완료했고 이중 남원 주천면 등 2개 지방도의 경우에는 응급 복구가 진행 중이다. 이밖에도 농경지 침관수 5ha가 남원시 아영면에서 발생했고 배수는 이미 완료 됐다.

한편, 전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는 도민들이 국민행동요령을 익혀 호우 피해에 적극 대처 해 줄 것을 강조했다. /김진성 기자

문희상 의장 "일하는 국회 만들자"... 소위원회 활성화 법안 제안

문희상 국회의장(사진)은 27일 국회 상임위원회의 소위원회 활성화를 위해 상설소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소위원회 개최를 정례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 운영위원회에 제안했다.

문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여야 3당 원내대표들과 회동을 갖고 소위원회 활성화 방안이 제도화될 수 있도록 운영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고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전했다.

앞서 문 의장은 취임 일성으로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일 잘하는 실력 국회'로 거듭나야 한다"면서 이에 대한 실천 방안으로



소위원회 활성화와 연중무휴 상시국회를 강조한 바 있다.

문 의장은 제안한 국회법 개정안은 상임위에 둘 이상의 상설 소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각 상설소위가 소관분야의 법률안과 청원, 현안사항 등의 안건을 보다 전문적으로 심사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했다.

또 상설소위는 매주 1회 이상 회의를 원칙으로 하며, 소위원회 개최 권고 기준을 현행 수요일에서 수·목요

일 이틀간으로 확대해 소위원회 활성화를 유도했다.

국회 관계자는 "문 의장이 이번 제안한 법안이 통과될 경우 소위가 활성화돼 일하는 국회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문 의장은 이날 인사와 조직, 예산 등 국회 운영의 전반적인 혁신을 위해 국회의장 직속에 '국회혁신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밝혔다.

자문위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 총 9명의 자문위원으로 꾸러지며, 이중 3명은 원내 교섭단체에서 각 1명씩 추천받아 구성될 예정이다. /뉴시스

최첨단 종합식육가공센터!

도드람김제 FMC 준공

한돈 산업의 새로운 기준을 세우다

생산부터 가공, 판매까지 책임지는 협동조합형 패커가 되겠습니다!

도드람김제에프엠씨 김제시 백산면 부거리 1583-6번지